

폭력남편 살해 여인 구명운동

여 95.9.1

시집에서 탄원, 인천변호사회서 무료변호 맡아

알콜중독자인 남편의 습관적인 폭력에 시달리던 한 여성이 결국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.

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6월 24일. 결혼 13년째를 맞고 있는 최모(35) 씨는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 신모 씨가 잠든 사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.

사건의 발단은 버섯재배장에서 일을 마치고 조금 늦게 귀가한 최 씨에게 남편 신 씨가 늦게 왔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시작됐다. 최 씨의 진술에 따르면 잠시 자리를 피하면 남편의 화가 가라앉을 것

같아 밖에 있다 8시 30분경 들어온 뒤 저녁을 준비해 남편에게 차려 주었다는 것. 그러나 남편은 '너 같은 X이 차려 준 밥은 안 먹어'라고 소리를 치고는 밥상을 엮고 재떨이를 던지는 등 12시 30분까지 최 씨를 구타했다는 것이다.

새벽 2시 경, 최 씨는 방에 들어와 자라는 말을 거부하고 마당에서 자던 남편 신 씨를 집앞 나무에 연결시킨 끈으로 올라가미를 만들어 목을 졸라 살해하고 말았다. 사건을 저지르고 난 후 최 씨는 이장에게 달려가 자신이 남편을 살해했다고 신고한 후 김포경찰

서에 유치된 뒤 인천 학익동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다.

남편 신 씨는 평소에도 술에 취해 있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였고, 술만 마시면 부인 최 씨를 구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.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가 재혼해 3살 때부터 친척집에서 외롭게 살아온 최 씨는 그간 아이들에게 자신의 아픔을 되물림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식당일, 버섯장일, 인삼밭일, 미싱일 등을 가리지 않고 해 왔으며, 사건 발생 한달전에는 시동생 집으로 찾아가 '도저히 못살겠으니 이혼하게 해달라. 나는

(남편에게) 무서워서 이야기 못하겠다'고 하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.

한편 사건이 알려지자 최 씨의 이웃을 중심으로 구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. 가장 먼저 준비를 했던 곳은 최 씨의 시집. 평소 아들의 폭력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며느리 최 씨를 안타까워 하고 있던 시집에서는 최 여인의 구명을 위해 이웃들의 서명을 받고,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다.

또 사건을 접한 강화여성의전화(회장 황선희)는 최 씨를 정기적으로 접견해 심리적인 안정을 돕는가 하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. 그리고 인천 변호사회는 무료변호를 자청해 최 씨를 돕고 있는 상태다.